



서길암의 고려불교인물 <5> 원통수좌 균여 (圓通首座 均如; 923~973)

초기 고려의 국왕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 중의 하나는 당연하게도 왕권의 강화였다. 실제 후삼국의 통일과정에서 후백제와 고려 태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오가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역 세력들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점이 승패를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려 태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각 지역 세력들에 크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불교세력의 동조였다. 태조 왕건은 각지의 유력한 승려들을 적극적으로 회유했고, 회유에 응한 유력한 승려의 움직임을 쫓아 지역세력 역시 태조 왕건에게 힘을 실으면서 후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견해를 대해 결정적인 승기를 점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해인사의 북악(北岳) 계통의 수장이었던 희랑대사의 도움이었다. 이 사건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 고려 태조는 고려와 후백제, 신라의 옛 경계가 맞닿는 지점인 논산의 황산을 천호산(天護山)으로 개칭하고 그곳에 화엄종 사찰 개태사(開泰寺)를 창건했다.

삼국 통일을 기념한 사찰을 화엄종 사찰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건국 초기 고려 왕실에서 화엄종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동시에 국가의 통치에 화엄사상을 활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러 배경이 있었지만, 우선 화엄종의 세력이 이 시기에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리고 신라 말 고려 초 사이에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와 산문(山門)을 개창한 선사들이 대부분 화엄종 출신이거나 화엄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이들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불교국가를 표방한 고려의 입장에서 교와 선 어느 입장을 후원하는 것도 무리였는데, 그 중심 역할을 화엄종에서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화엄종 역시 신라 하대 선의 전래로 인한 충격을 딛고서 세력을 회복해가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려 불교 전체를 주도하는 입장에 서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 그 와중에 왕권의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던 국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광종과 현종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광종이 왕권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때, 화엄종을 다시 한번 일신시키는 이가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대화엄수좌 원통 양중대사 균여(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 均如)'이다.

균여, 흔히 일반인들에게는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라는 향가의 창작자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스님이다. 하지만 사상사적으로 본다면 신라 의상에게서 시작된 해동화엄의 계승자로서 고려 화엄의 초석을 놓은 스님이기도 하다. 스님의 법계를 추적하면, 해인사 북악(北岳)의 종주(宗主)였던 희랑이 스님의 법조가 되며, 영통사에 주석했던 의순(義順)의 제자이다.

스님은 이 북악의 화엄종맥을 이어, 남악과 북악의 종취가 달라서 구분되지 못함을 매우 탄탄하였으며, 많은 갈래를 막아 한 길로 돌리고자 노력했다고 전기에서는 전한다. 바꾸어 말하면, 화엄을 둘러싼 분분한 해석들에 대해 북악계의 입장에서 명쾌한 해명을 내놓고자 노력했다는 의미이다. 화엄의 중요한 장승(章證)들을 다시 주석하고 강의해 그 요지를 드러내었는데, 지엄과 범장 및 의상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 10여 종을 찬술한 것이 그것이다. 광종대

수행자 본분에 충실했던 인물



태조 왕건은 삼국통일을 기념해 논산에 화엄종 사찰인 개태사를 창건했다.

에 원통사에서 승려의 과거시험[僧科]을 실시했을 때, 균여 스님의 견해를 정통으로 삼고 나머지의 견해로 방계를 삼았다는 것은, 균여의 저술과 강의를 당시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균여 스님의 생애에 있어서 무엇보다 획기적이라 할 만한 것은 그의 학문하고 수행하며 교화하는 태도에 있었다. 우선 단적으로 들어가 할 것이 스님의 모든 저술들이 향찰 곧 이두로 쓰여졌다는 점이다.

신라 의상 스님 이후로, 의상계의 화엄승들은 그들의 저술들을 대부분 향찰로 저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일반 의상계의 화엄승들이 한문에 밝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

것이니, 세속의 이치에 기대지 않고는 저열한 바탕을 인도할 길이 없고 비속한 언사에 의지하지 않고는 큰 인연을 드러낼 길이 없다.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비근한 일을 바탕으로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깊고 미묘한 가르침을 깨우치게 하고자 열 가지 큰 서원의 글에 의지하여 열한 수의 거친 노래를 짓는다. ... 범속한 사람들의 선한 바탕을 일깨우려는 것이니, 비웃으려고 염송하는 이라고 해도 염송하는 바 소원의 인연을 맺을 것이며, 휘발하려고 염송하는 자라도 염송하는 바 소원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균여 스님 스스로 밝힌 보현십원가를 짓는 뜻이다. 이 뜻이 당시 사람들에게 흔쾌히 받아들여졌는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서 담벼락에 쓰여지기도 했다고 한다. 중생의 입장에서 중생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노래를 지을 일도 이 같은 노래가 민간에서 불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균여 스님이 광종과 왕실의 뜻을 받아들여 중앙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959년, 광종이 교종을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귀법사를 창건하고 균여를 주석하게 한 것이 963년이다. 혁련정의 <균여전>에는 스님이 개보 6년(973년) 6월 17일 귀법사에서 임직해 팔덕산에 장사지낸 소식을 부기 형식으로 전한다. 김지전 선생님은 일찍이 이 부분에 주목하고, 스님의 입적 후에 왕의 조문도 시호를 내리지도 않았던 점 등을 들어서 스님의 입적이 평화스러운 것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의 이면에는 광종의 왕권강화를 위한 불교사책이 신라적 정서를 가진 의상계 화엄의 계승자인 균여나, 신라하대에 성립된 9산선문과 잘 어울리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한다. 광종이 지중 등 30여 승려를 유학시켜 새로운 종파인 법안종을 도입하려 했던 것과 이 신라적 정서가 강한 불교 사이에는 일정한 위화감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위정자와 화엄행자 균여의 불교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이 있다. 화엄행자 균여에게는 법을 널리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본분이었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었던 까닭이다. 그 알려지지 않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노래는 담벼락에 새겨졌고, 스님의 저술은 개태사에 보관되었다가 훗날 한문으로 다시 옮겨져 대장경에 편입되었으니, 역사는 본분에 충실했던 수행자를 외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중생에 미묘한 깨침 전하러 '보현십원가' 지었던 균여는 화엄종 초석 다진 선지식

의 글로써 학문하겠다는 풍토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곧 당시의 대중들이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학문하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르치기와 글쓰기가 자신들이 교화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학문하기의 기본적인 입장이 실천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이 균여 스님의 학문하기 자세가 드러난 또 다른 예가 바로 보현십원가이다. 보현보살의 10중 대원을 바탕으로 지은 11수의 향가 달리 사뇌가(詞腦歌)는 나중에 한문으로도 번역되지만, 지어진 뒤에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 먼저 불리었던 민간의 노래였다. 혁련정은 <균여전> '노래를 펴서 세상을 교화하다[歌行化世分]'에는 다음과 같이 보현십원가의 서문을 전한다.

"대저 사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데 쓰는 도구이며, 원왕(願王)이라는 것은 보살이 수행하는 주축이다. 그리하여 알은 태를 지나서야 깊은 곳에 이를 수 있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먼 곳에 다다를 수 있는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2 정토진종의 조사 신란 상인 (親鸞上人 상)



정토진종의 조사 신란 상인 (親鸞上人 상)

일본 최대 종파 정토진종의 개창자인 신란(親鸞; 1173~1262) 상인은 9세에 출가해 천태종 본산이 있는 히에산에서 수학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전란과 재해로 민중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다. 특히 권력을 둘러싸고 천황가는 천황가끼리 무사들은 무사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계속했다. 신란이 19세 되던 1192년에는 천황의 실권이 추락하고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카마쿠라 막부가 세워졌다.

말세의 시대를 고민하던 그는 29세에 히에산에서 내려와 교토의 육카쿠도(六角堂)에서 백일동안 정진했다.

백일 정진이 95일째 되던 날, 구세(救世)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진 쇼토쿠(聖徳) 태자가 꿈속에 나타나 그에게 계시를 전했다.

"수행자가 전생의 인연으로 여성을 범한다면 내가 여성의 몸이 되겠다. 그리고 일생 동안 잠업을 이룰 것이며 임종시 극락으로 인도해 태어나게 하겠다."

이로써 천태의 엄격한 계율로부터 해방된 그는 평생을 중생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 호족의 딸인 에신니(惠信尼)와 결혼한다.

1214년에는 가족을 동반해 이바라기현으로 옮긴 후, 20년 가까이 엄불전도에 힘썼다. 관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많은 제자를 배출하며 초기종단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의 주저서인 <교행신증(教行信証)>은 이곳에서 초고본을 완성하고, 거듭 손질한 끝에 만년에 완성하게 됐다. 신란은 스승의 전수염불 사상을 더욱 내면화했다. 그는 <무량수경>에서 법장비구가 세운 본원이 아마타를 성취로 인해 중생들이 이미 구제됐다는 신심의 염불을 세우고, 현생에서 왕생의 인(因)인 정정취(正定聚)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정정취는 깨달음이 결정돼 있는 중생 또는 그 위를 말한다. 신란은 <교행신증>에서 이러한 교설을 더욱 구체화했다.

스승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던 신란은 여기에 서명했다. 조정으로부터 엄불정지의 명령이 내리기 2년 전인 1205년에는 호넨으로부터 <선택본 원염불집>의 서사와 자신의 초상화를 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1207년 신란은 스승과 함께 전수염불에 대한 탄압으로 유배됐고, 승적 박탈과 더불어 후지가 겐신(藤井善信)이라는 속명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머리를 깎은 바보 같은 놈'이라는 의미의 구도쿠(愚頭)라 지칭



신란 상인의 목조 좌상, 미에현 센주지(專修寺) 소장.

하고, 비승비속의 생활을 신조로 삼았다. 사면 후에는 동해안을 바라보는 니이카타현에 머물며 수행과 포교에 힘썼다. 그리고 그 지역 호족의 딸인 에신니(惠信尼)와 결혼한다.

1214년에는 가족을 동반해 이바라기현으로 옮긴 후, 20년 가까이 엄불전도에 힘썼다. 관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많은 제자를 배출하며 초기종단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의 주저서인 <교행신증(教行信証)>은 이곳에서 초고본을 완성하고, 거듭 손질한 끝에 만년에 완성하게 됐다. 신란은 스승의 전수염불 사상을 더욱 내면화했다. 그는 <무량수경>에서 법장비구가 세운 본원이 아마타를 성취로 인해 중생들이 이미 구제됐다는 신심의 염불을 세우고, 현생에서 왕생의 인(因)인 정정취(正定聚)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정정취는 깨달음이 결정돼 있는 중생 또는 그 위를 말한다. 신란은 <교행신증>에서 이러한 교설을 더욱 구체화했다.

스승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던 신란은 여기에 서명했다. 조정으로부터 엄불정지의 명령이 내리기 2년 전인 1205년에는 호넨으로부터 <선택본 원염불집>의 서사와 자신의 초상화를 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1207년 신란은 스승과 함께 전수염불에 대한 탄압으로 유배됐고, 승적 박탈과 더불어 후지가 겐신(藤井善信)이라는 속명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머리를 깎은 바보 같은 놈'이라는 의미의 구도쿠(愚頭)라 지칭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들을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개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1 생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생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아주 특별한 영지유의 세계!!

전생·빙의

“한마디 말로三生을 깨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빙의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한국최면과학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부속 최면연구소

http://www.hypnos114.com

- KBS 무한지대-극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tvN 엑소시스트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캘리포니아대학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국제 임상최면 전문가
심리상담 전문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최면학 강의 및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빙의 등

대전(042) 222-0737

대전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도청과 대전세무서 중간지점)